

제1절 갈면리(葛綿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뒷산 능선을 경계로 기성면 삼산2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금장산 지맥이 중첩되어 있으며 고초령(高草嶺)과 대령산(大嶺山)이 높이 솟아있다. 남쪽은 마을 중앙을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면 갈마점(葛麻店) 윗골에서 길곡리와 경계를 하고 북쪽은 기양리저수지 상부(上部)에서 기양3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2016년에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하였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갈면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었다.

2. 마을의 역사

갈면리에는 소로실(蘇老室), 갈마점(葛麻店), 잣마(峴村), 솔밭마(松田村), 구석마(隅村), 강변주막거리(江邊酒幕거리), 고초령(高草嶺)이 있다.

1) 갈마점(葛麻店)

참과 삼이 많이 생산되므로 갈마점이라 하며, 장귀석(張貴碩)의 둘째 아들 응복(應福)을 분가시킨 곳이라 전한다.

2) 강변(江邊)

넷가에 마을이 있으므로 이곳을 강변이라 하는데, 예부터 낚시와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형성된 마을이라 한다.

3) 고초령(高草嶺)

1780년경에 초계 정씨(草溪鄭氏)인 정교흠(鄭敎欽)공이 자기의 고조부(高祖父)인 수택(洙澤)공의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입향(入鄕) 개척하였으며 이어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가세하였다. 전성기에는 10여 가구가 성황당(城隍堂)을 모시고 살았으나 지금은 소개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

4) 고초령(高草嶺)의 도적(盜賊)바위

이 고개는 해발 700m로 울진~영양간의 경계 지역이며 30여 리가 무인지역(無人地域)으로 도적들이 간혹 나타나 상인들의 금품을 탈취함으로 도적바위라 전하고 있다. 또한 이 산령

(山嶺)에는 보부상(裸負商)들의 수많은 애환이 서려 있고 도적들이 나타났던 일화도 있다.

5) 구석마(隅村)

산모퉁이 구석진 곳에 몇 집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구석마라 한다.

6) 산신타(山神터)

이 골을 대리골이라 하는데 골막바지에 큰 바위가 있어 인동인(仁同人) 장응령(張應齡)이라는 사람이 3년간 신(神)에게 기도한 곳이라 하여 산신타라 전한다.

7) 소로실(蘇老室)

1574년에 동북현감(同福縣監)을 지낸 인동인(仁同人) 장귀석(張貴碩)이 선친(先親)이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은둔하던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新岩里)에서 울진으로 이거(移居)하여 울진입향조(蔚珍入鄕祖)가 되었다. 마을을 개척하여 살면서 젊은 사람은 늙지 말고 늙은 사람은 다시 소생(蘇生)한다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소로실이라 하였다 한다.

8) 솔밭마(松田)

노송(老松)이 많은 곳에 마을이 이루어졌다 하여 솔밭마라 전한다.

9) 잣마(峴峙)

높은 산 밑의 낮은 산비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잣마라 한다.

10) 주막거리(酒幕거리)

예로부터 영양군 수비면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이 고초령 재 밑에 쉬어가는 주막이 있다 하여 주막거리라 한다.

3. 가구 분포

총 94세대가 거주하며 인동 장씨(仁同張氏) 집성촌이며, 홍천 용씨(洪川龍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원주 변씨(原州邊氏), 초계 정씨(草溪鄭氏), 거제 반씨(巨濟潘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분포한다.

4. 마을의 특징

이 마을은 갈피(葛皮)와 면(綿), 송이가 많이 나고, 농토가 비옥하여 갈면(葛線)이라 하였고 한다.

1) 성황당(城隍堂)

성황당은 소로실과 갈마점에 1개소, 갈면에 1개소가 있는데, 당사(堂舍)는 없고 수백 년 된 나무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 엄선된 제관이 목욕재계하고 마을의 안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사를 지냈다. 이 마을에는 가정별로 큰 나무나 바위를 지정해 해마다 단오 무렵에 치성을 드리는 ‘산맥이’ 고사가 전승된다.

2) 한지생산

갈면리·길곡리·기양리 등지에서 창호지 원료인 저피(楮皮)가 많이 생산되고 냇물이 깨끗하여 질이 좋은 창호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제2절 금매1리(金梅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근남면 진북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매화천을 경계로 매화2리와 금매2리 몽천동과 인접되며, 남쪽은 매화1리, 북쪽은 근남면 구산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약 2km 북쪽에 성류굴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대좌비(對座碑)

영양 남씨가 분가(分家)하여 살던 곳으로 지금도 한두 집이 살고 있는데 뒷산 봉우리에 대좌비(對座碑)가 있었다 하여 대지비라고 전하고 있다.

2) 쇠니이(蘇老村)

1400년경에 단천군수(端川郡守)를 역임한 영양인(英陽人) 남득공(南得恭)이 경주에서 입